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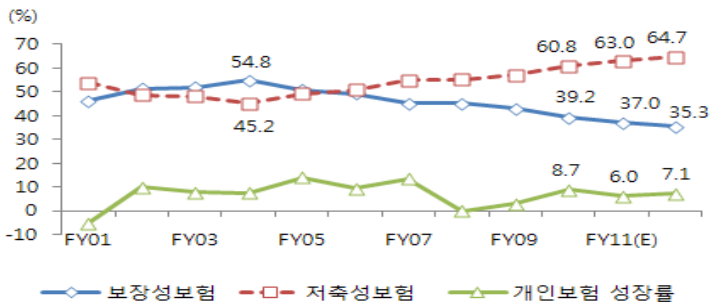
IV. 국내보험시장

1. 생명보험

가. 개인보험

- FY201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6.0% 증가하여 FY2010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2에는 보장성보험 플러스 성장 전환과 저축성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증가세가 기저효과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되면서 6.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FY2012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저축성보험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 개인보험 상품별 비중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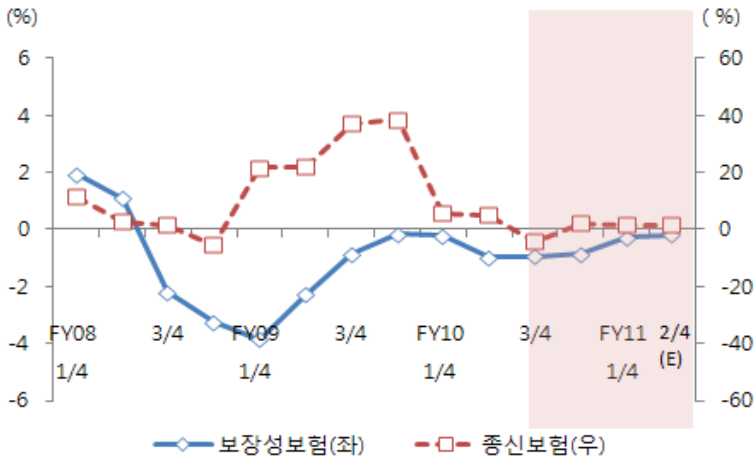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저축성보험 비중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FY2012 각각 35.3%, 64.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1) 보장성보험(종신·CI·건강) 현황과 전망

- FY201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FY2010에 비해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1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실적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폭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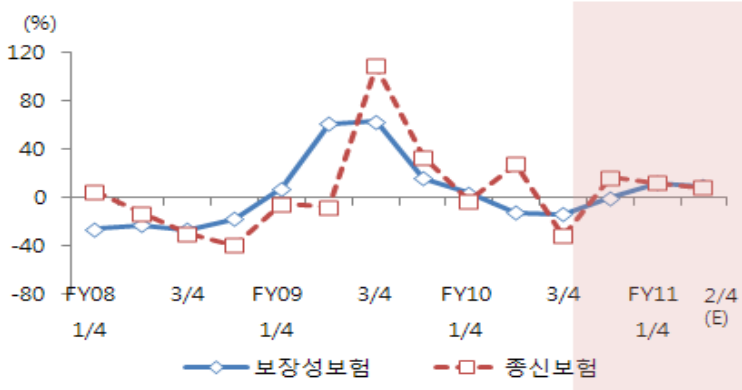
〈그림 IV-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신상품 마케팅 강화로 FY2010 4/4분기와 FY2011 1/4분기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음.
- FY2011 하반기에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지면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3〉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V-1〉 보장성보험 분기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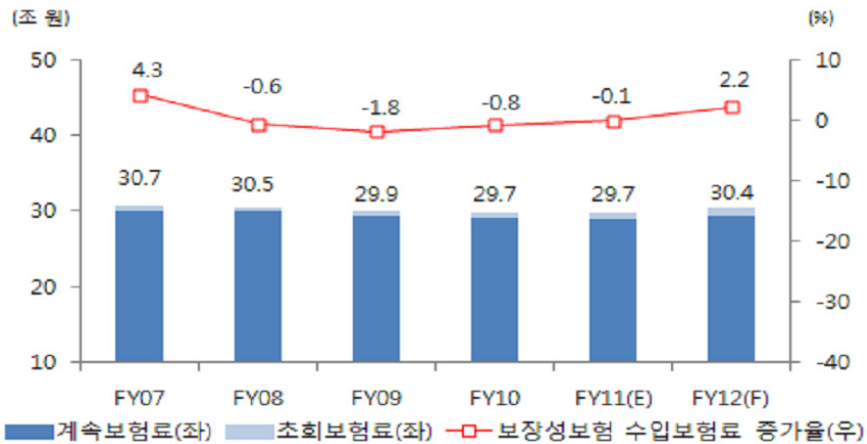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FY10 1/4	2/4	3/4	4/4	FY11 1/4	2/4(E)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3.5	-12.5	-13.9	-0.2	11.8	9.1
	계속보험료	-0.3	-0.7	-0.6	-0.9	-0.5	-0.4
	수입보험료	-0.2	-1.0	-0.9	-0.9	-0.3	-0.2
종신보험	초회보험료	-3.2	27.3	-32.2	16.1	11.7	7.9
	계속보험료	5.9	4.6	-3.5	1.9	1.3	1.4
	수입보험료	5.7	4.9	-4.2	2.1	1.5	1.5
비종신보험	초회보험료	12.3	-32.5	15.7	-13.6	11.9	10.3
	계속보험료	-8.7	-7.9	4.5	-5.1	-3.4	-3.1
	수입보험료	-8.3	-8.9	4.7	-5.4	-3.1	-2.8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암보험을 중심으로 신상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증가율은 2.2%에 그칠 전망이다.
 -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사망 전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생존 급부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종신보험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성보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당국이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암보험 관련 신상품 출시로 비종신보험 수요 증가도 예상됨.
 - 2011년 6월 17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험회 및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고령자·유병자 등 보험소의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암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림 IV-4〉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그러나 보장성보험은 초회보험료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패턴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2) 저축성보험(생사혼합 · 생존 · 변액)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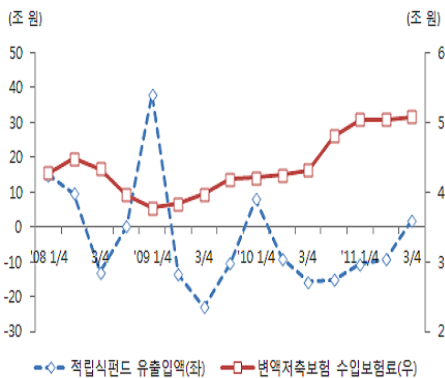
■ FY2011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와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9.9%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11 상반기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경쟁상품 대비 상대적 고금리 지속,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변액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증가폭은 FY2010에 비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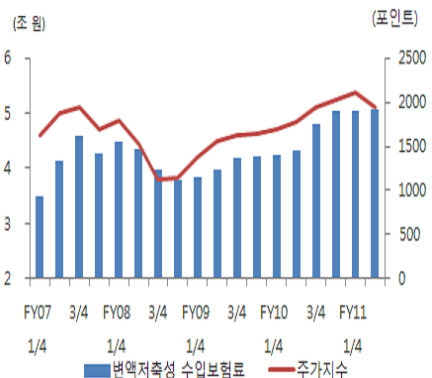
○ FY2011 하반기에도 기저효과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변액저축성보험 수요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면서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 변액보험과 펀드유출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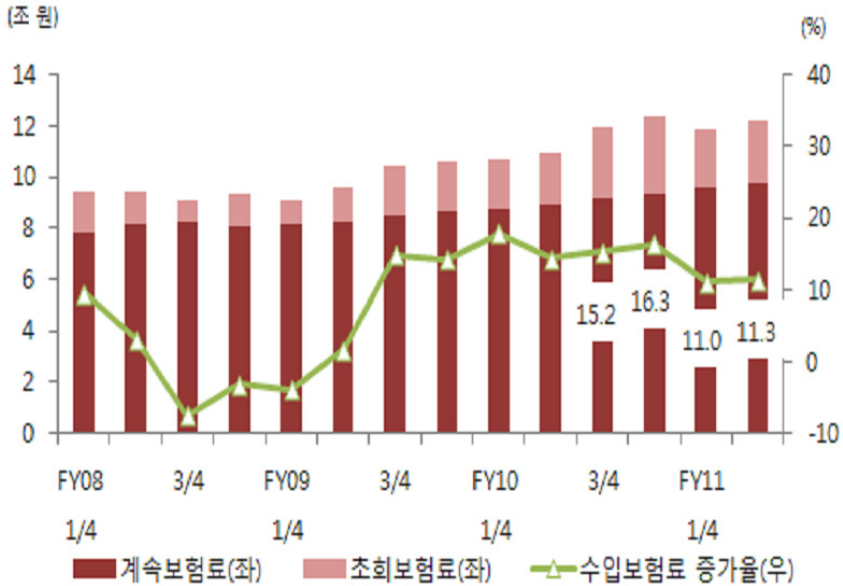
〈그림 IV-6〉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이에 반해 펀드의 경우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 주가가 회복되자 환매가 발생하였음.

〈그림 IV-7〉 저축성보험 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일반저축성보험은 FY2009 3/4분기 이후 15%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FY2011 들어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성장폭이 둔화되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은 타 금융권 대비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 등으로 FY2009, FY2010 각각 23.6%, 28.2% 증가하였으나, FY2011 1/4분기와 2/4분기에는 증가율이 각각 13.1%, 14.2%로 둔화됨.
 - 한국은행은 3월 1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됨.

- 또한 세제혜택 제도 변경(비과세 혜택 요건, 7년 유지 → 10년 유지)으로 2003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재가입 효과가 2010년에 소진됨.
- 생존보험도 FY2010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FY2010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5%, 2.8% 증가에 그침.
-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금보험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여전히 정기예금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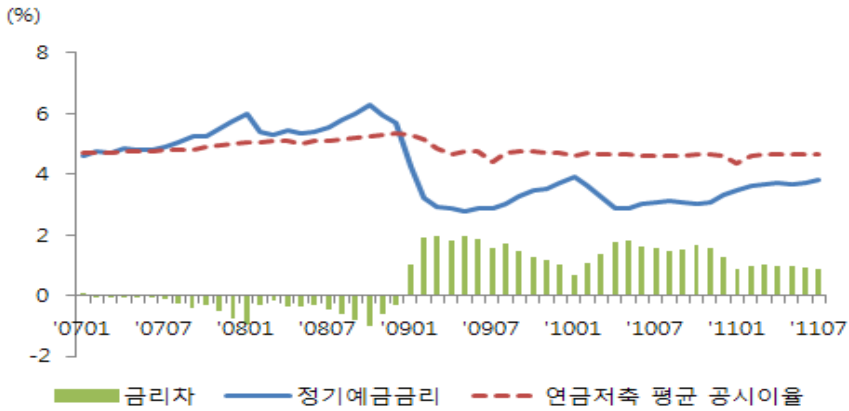
〈표 IV-2〉 저축성보험 분기별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FY10 1/4	2/4	3/4	4/4	FY11 1/4	2/4(E)
저 축 성 보 험	초회보험료	101.0	45.4	43.6	51.4	19.7	24.5
	계속보험료	7.9	9.0	8.7	8.1	9.0	8.2
	수입보험료	17.8	14.3	15.2	16.3	11.0	11.3
일 반 저 축 성	초회보험료	113.2	52.1	33.7	30.1	-1.6	8.7
	계속보험료	8.2	10.4	9.7	8.4	8.3	6.5
	수입보험료	22.9	18.3	15.5	14.0	5.9	7.1
변 액 저 축 성	초회보험료	61.8	23.3	76.5	146.2	109.8	88.7
	계속보험료	7.6	7.4	7.3	7.7	10.0	10.5
	수입보험료	10.8	8.7	14.8	19.9	18.7	17.7

주: 일반저축성은 생존, 생사혼합을 포함하며, 변액저축성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V-8〉 연금저축 평균 공시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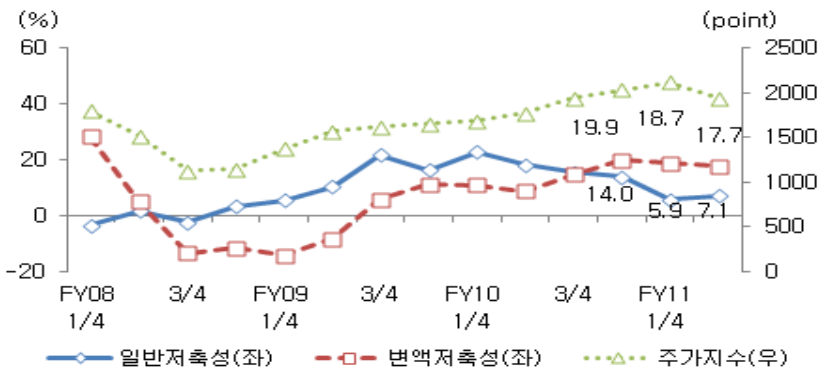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 FY2011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종합주가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8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FY2011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KOSPI지수는 5월 2일 2,228.96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힘입어 변액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FY2010 4/4분기 이후 변액저축성보험 증가율이 일반저축성보험 증가율을 상회함.

〈그림 IV-9〉 저축성보험 증가율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1년 8월 이후 KOSPI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1,644.11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FY2011 하반기 변액보험 수요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FY2012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과 노후소득 관심 증가로 변액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나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되면서 전년 수준인 10.0% 증가율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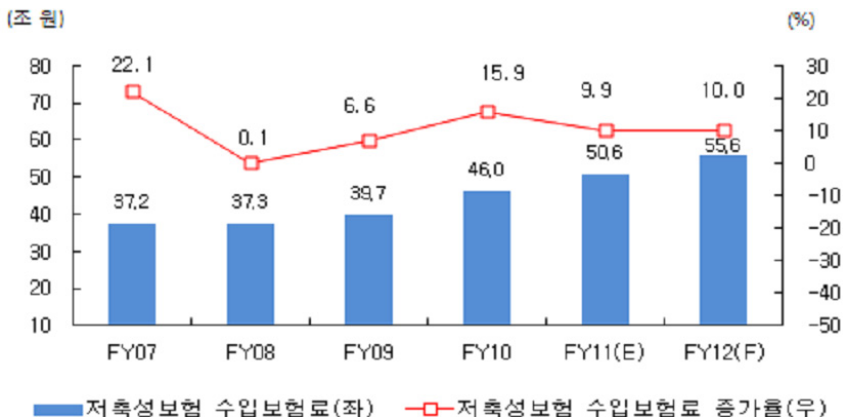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예금금리와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간 금리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세계적 연금보험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계적 개인연금 수입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생명보험 일반생존보험 중 세계적 개인연금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여건 개선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변액연금의 고성장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0〉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표 IV-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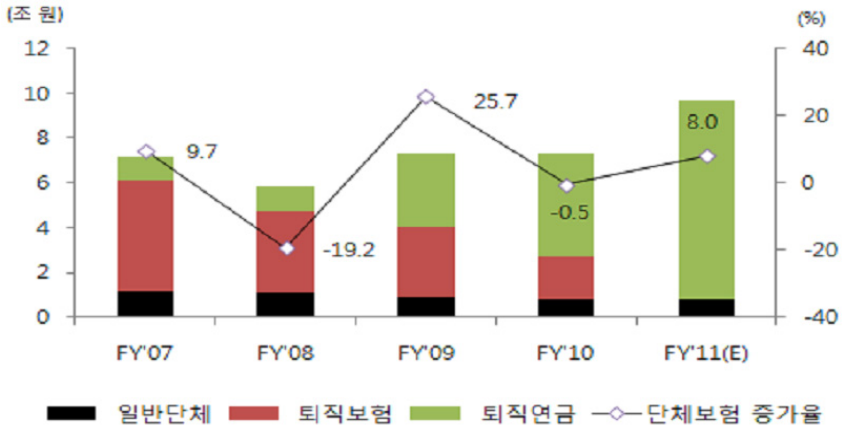
구분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¹⁾	299,386	-1.8	297,126	-0.8	296,917	-0.1	303,524	2.2
저축성	397,165	6.6	460,277	15.9	505,875	9.9	556,438	10.0
개인계	696,551	2.8	757,403	8.7	802,792	6.0	859,962	7.1

주: 1)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나.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1 상반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FY2011 상반기에 비해 127.0% 증가한 반면, 일반단체보험은 2.3%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말 제도가 종료되면서 82.2%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3/4분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1/4분기와 2/4분기에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FY2011 하반기에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효과가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단체보험 증가율은 8.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IV-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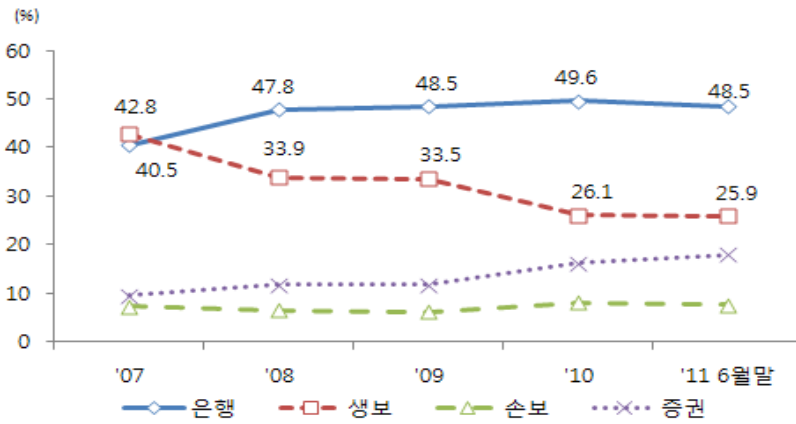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2008년 이후 4년째 국회 계류 중이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7월 25일 공포되면서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없으며, 신설기업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또한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며, 퇴직자의 퇴직금이 IRA로 강제 이전되고 DB/DC형에 가입한 재직자와 일반자영업자도 IRA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IRA시장 확대 조치도 포함됨.

-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말에는 2010년 말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0.2%p)된 2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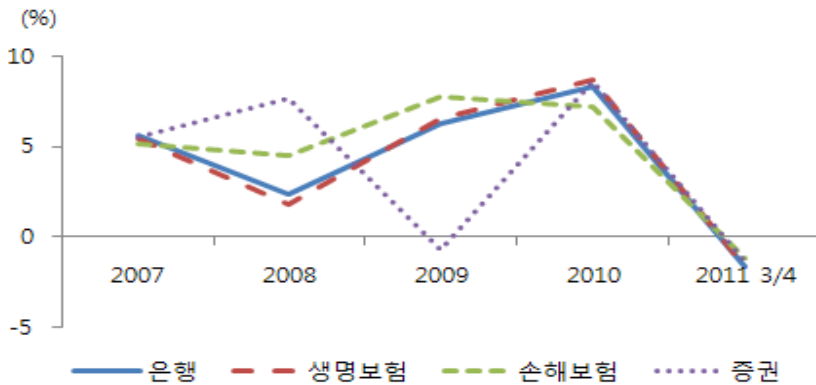
〈그림 IV-12〉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과 생명보험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수익률은 업권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3〉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 추이



주: 평균수익률은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평균한 것이며, 수익률이 '0'으로 공시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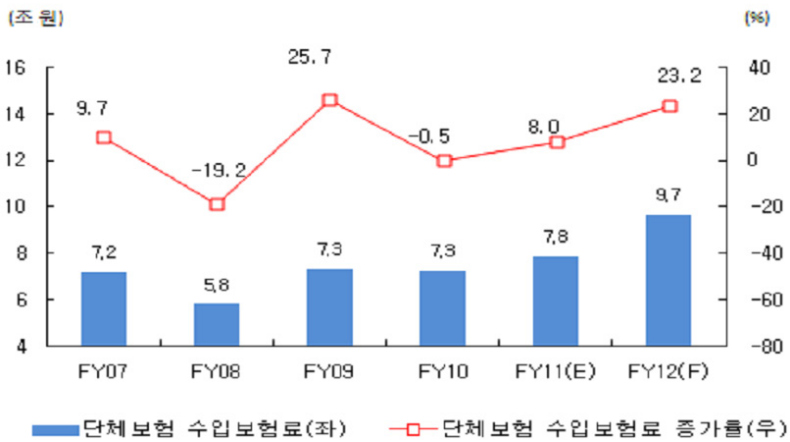
■ FY201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효과가 소진되면서 2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등에 힘입어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생명보험 퇴직보험 계약의 퇴직연금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FY2010(41.1%), FY2011 추정치(51.1%)보다 낮은 27.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FY2012 이전에는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가 퇴직연금의 고성장을 상쇄하였으나 FY2012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단체보험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V-1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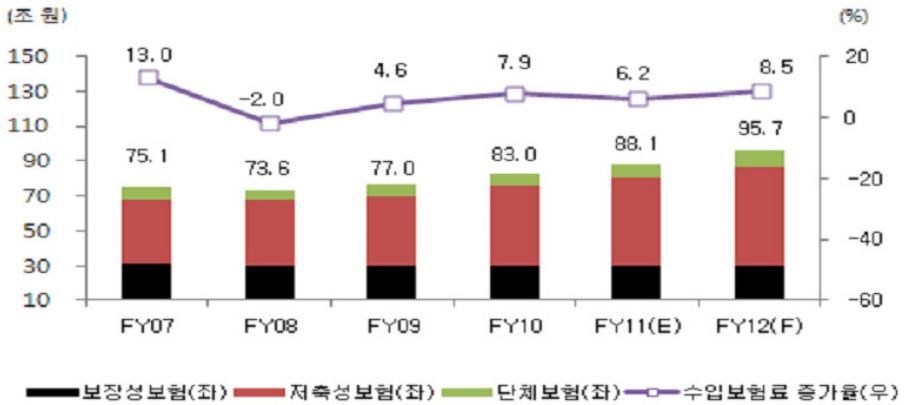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업권 간 경쟁과열로 축소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이 과열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8월 3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업권 간의 과열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을 70%로 제한하기로 함.

다. 생명보험 종합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개인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FY2010보다 1.7%p 낮은 6.2%로 예상된다.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저축성보험이 기저효과와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6.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8.0%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성장세 회복과 함께 단체보험이 고성장하면서 8.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의 신상품 전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9 이후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저축성보험은 FY2011에는 기저효과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겠으나, FY2012에는 성장세를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효과가 소진되면서 증가율이 23.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1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표 IV-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696,551	2.8	757,403	8.7	802,792	6.0	859,962	7.1
단체	73,017	25.7	72,671	-0.5	78,497	8.0	96,670	23.2
합계	769,568	4.6	830,074	7.9	881,289	6.2	956,632	8.5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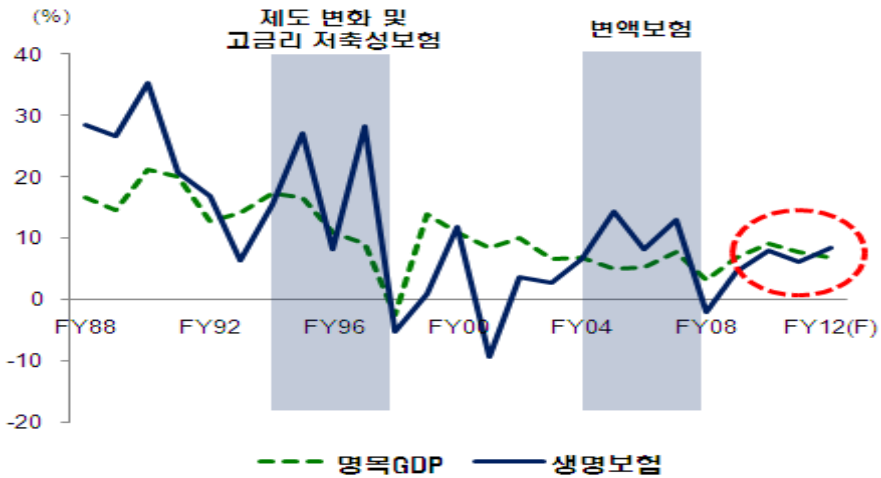
■ FY2012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위험요인이 있음.

- 첫째,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12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고가의 보장성보험 수요가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금년에 국고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일반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크게 약화될 수도 있음.
- 셋째,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 금융불안이 확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변액저축성보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의 경우 아직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큼.

- 생명보험은 최근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저축성보험임.

〈그림 IV-16〉 명목 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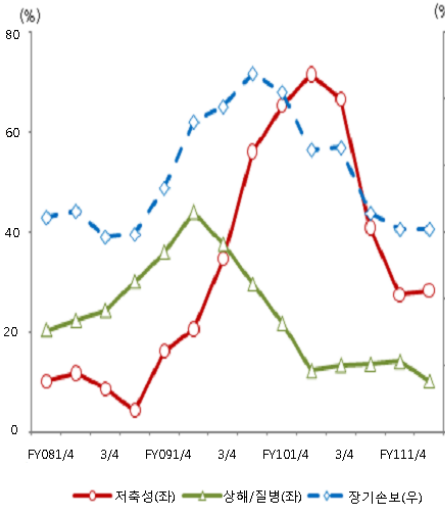
- 금융업권 간 상품구분이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저축성보험 위주의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임.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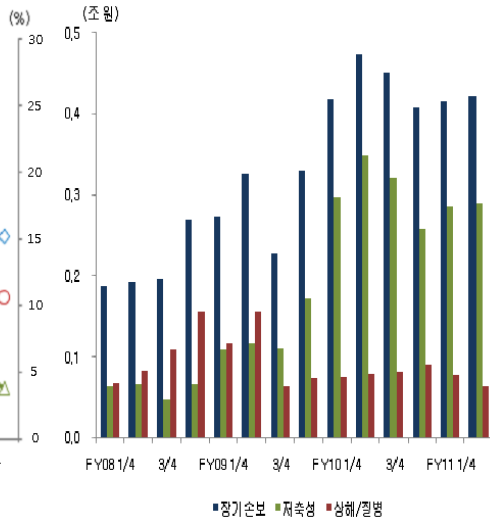
가. 장기손해보험

- FY20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과 재물보험 고성장으로 성장률이 15.9%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기저효과와 예금금리 상승에 의한 금리격차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나,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32.5% 증가가 예상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09 판매 급증 이후 낮아진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초회보험료 유입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0.6% 증가가 예상됨.

〈그림 IV-17〉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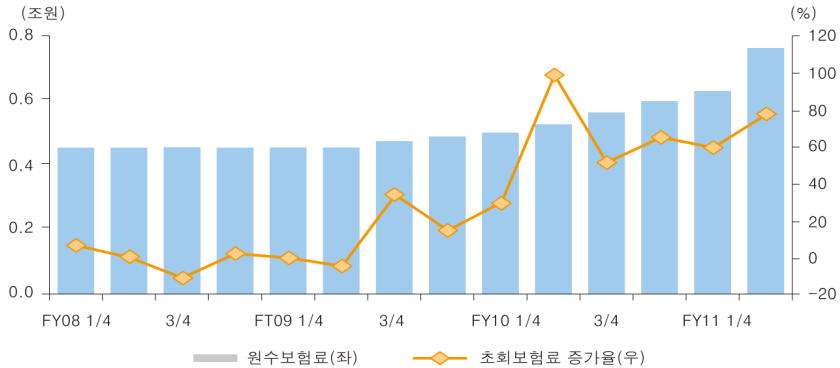
〈그림 IV-18〉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제도 개선¹⁹⁾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손해 보험업계의 판매 확대 노력도 이어짐에 따라 37.8%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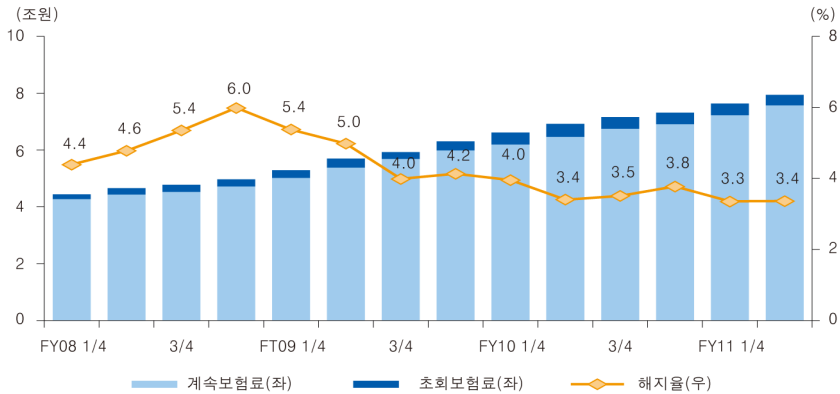
〈그림 IV-19〉 재물보험 원수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계속보험료 비중이 큰 장기손해보험의 특성 상 해지율이 4%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증가가 나타남.

〈그림 IV-20〉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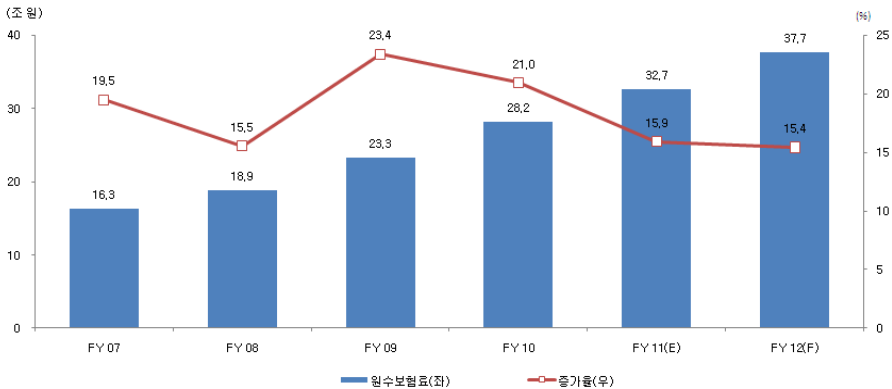
주: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분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으로 재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상해·질병보험, 재물보험의 견조한 성장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급증세는 둔화될 것이나 저금리기조 유지로 수요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낮아 25.3% 증가가 전망됨.
 - 또한,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등으로 저축 관련 수요가 보험산업으로 흡수될 수 있어 저축성보험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완만한 증가세(1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19.4% 증가가 전망됨.

〈그림 IV-2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IV-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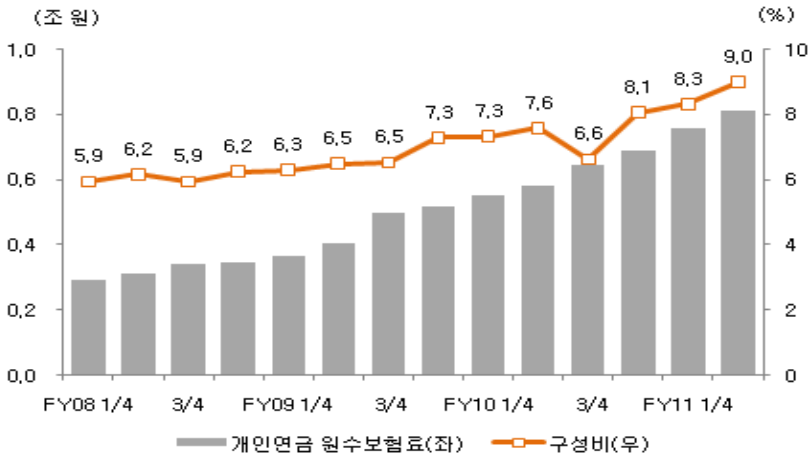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저축성	39,119	32.0	62,541	59.9	82,890	32.5	103,868	25.3
상해·질병	113,921	36.5	131,141	15.1	145,015	10.6	164,670	13.6
재물	18,635	2.9	21,791	16.9	30,034	37.8	35,858	19.4
기타 ¹⁾	61,312	6.4	66,340	8.2	68,763	3.7	72,674	5.7
장기손보	232,988	23.4	281,813	21.0	326,702	15.9	377,070	15.4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나.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FY2011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정부의 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영향으로 41.1% 증가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수요 증가와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38.3%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기성보험²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함.

〈그림 IV-2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및 구성비 추이



주: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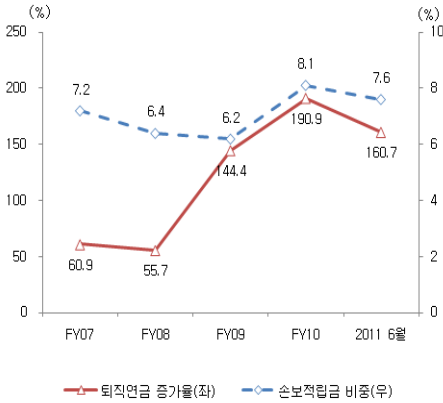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제도 종료²¹⁾로 인한 퇴직연금 전환 및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²²⁾ 등에 힘입어 7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권역별 적립금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20)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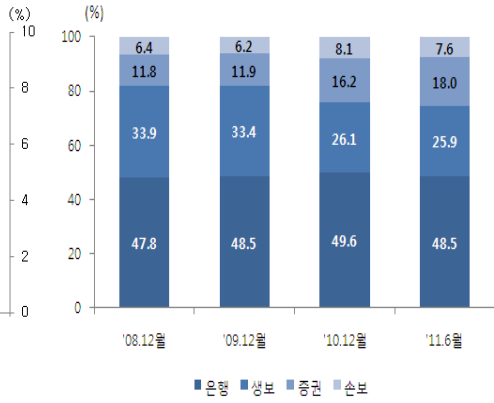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확대 도입, 퇴직연금 세제개편 등이 있음.

〈그림 IV-23〉 퇴직연금 증가 추이



〈그림 IV-24〉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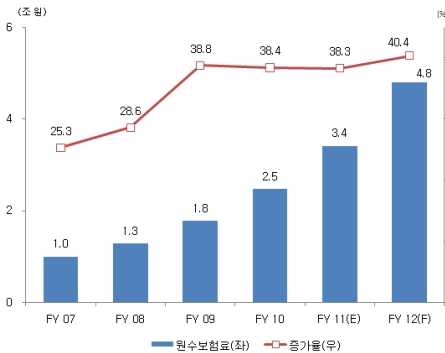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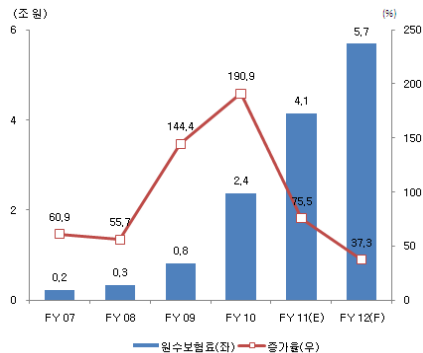
■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정부의 연금 관련 지원 등에 힘입어 40%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수요확대와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0.4% 증가가 전망됨.
-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²³⁾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37.3% 증가가 전망됨.

〈그림 IV-25〉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V-26〉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23) 2011년 6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신설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됨.

〈표 IV-6〉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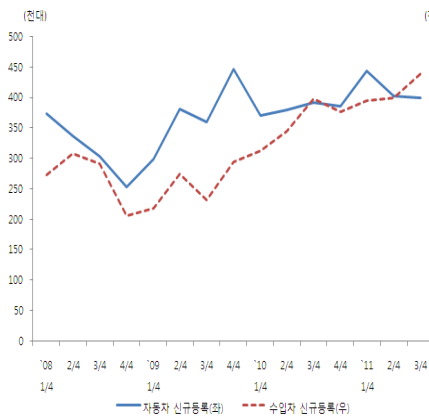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161	38.3	47,951	40.4
퇴직보험	8,680	27.5	5,284	-39.1	0	-100.0	0	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41,441	75.5	56,885	37.3
합계	34,641	50.7	53,598	54.7	75,602	41.1	104,836	38.7

다. 자동차보험

■ FY20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임의담보²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나 기저 효과 등으로 증가율은 8.0%로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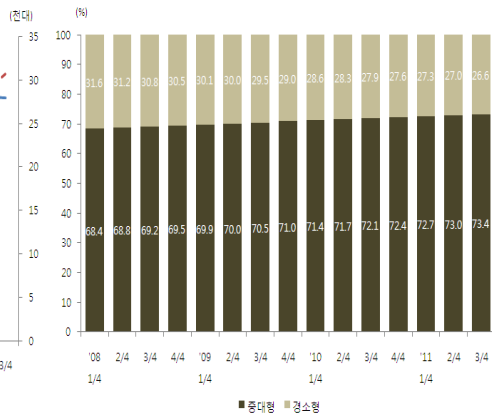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보험료 인상, 수입차·대형차 증가로 대물·자차 보험²⁵⁾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27〉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IV-28〉 중대형/경소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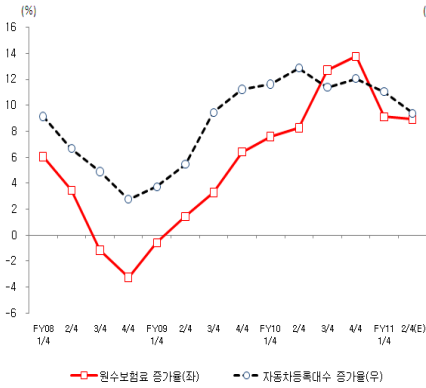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24) 임의담보란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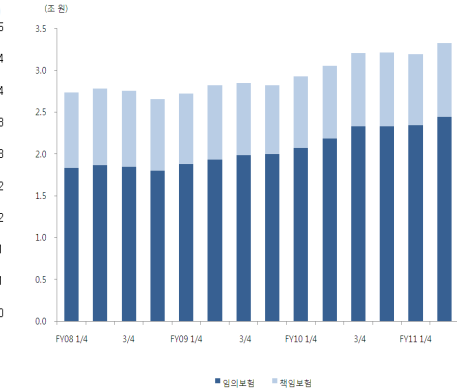
25)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의미함.

○ 그러나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것임.

〈그림 IV-29〉 자동차보험 및 등록대수



〈그림 IV-30〉 담보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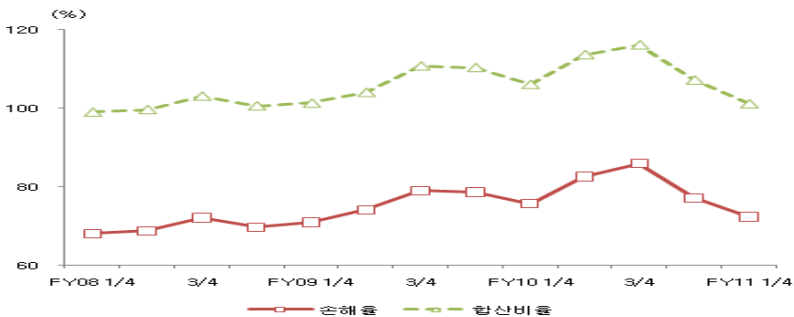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5.5%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온라인 판매 채널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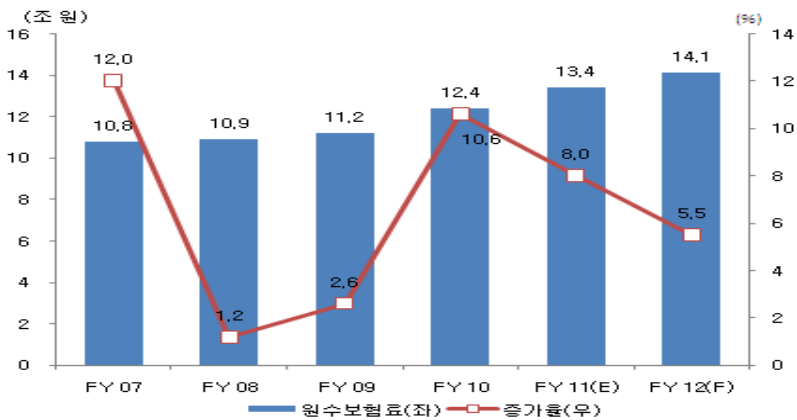
〈그림 IV-31〉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주: IFRS 도입 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의 경우 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 추세를 나타냄.
- 한편, 차량고급화·대형화로 인한 대물·자차 보험 증가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

〈그림 IV-3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IV-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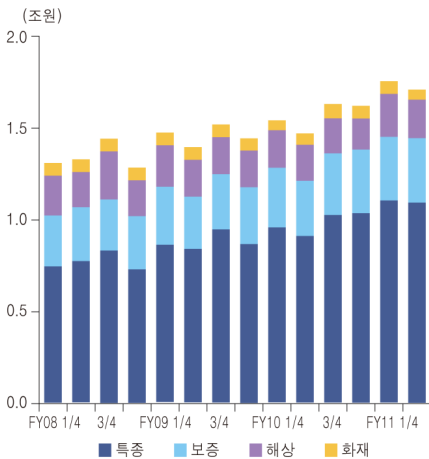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4,085	8.0	141,467	5.5

라. 일반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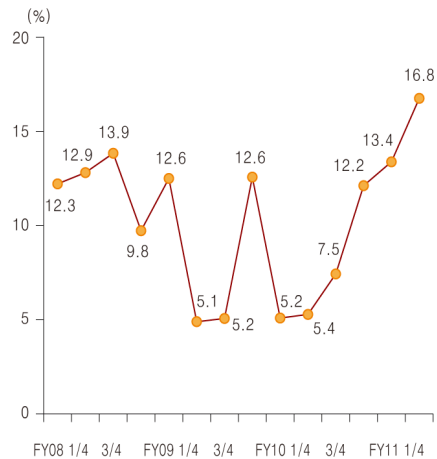
- FY201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 회복세와 보증 및 특종보험 증가에 힘입어 증가율이 11.2%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화재보험은 공장물건이 회복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건에서 「화보법」 개정²⁶⁾에 따른 수요확대가 나타나지 않아 1.1% 감소가 예상됨.
- 해상보험의 경우 적하보험이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감소하였으나, 선박보험이 기저효과와 수요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6.0% 증가가 예상됨.
- 보증보험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이행 보증보험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11.3%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의 경우 기술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책임, 상해, 종합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13.0% 증가가 예상됨.
 - 기술보험의 경우 공공부문 건설투자세 감소 및 민간건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상해보험의 경우 복지 관심 증대 등으로 단체상해보험 증가가 나타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함.

〈그림 IV-33〉 종목별 원수보험료



〈그림 IV-34〉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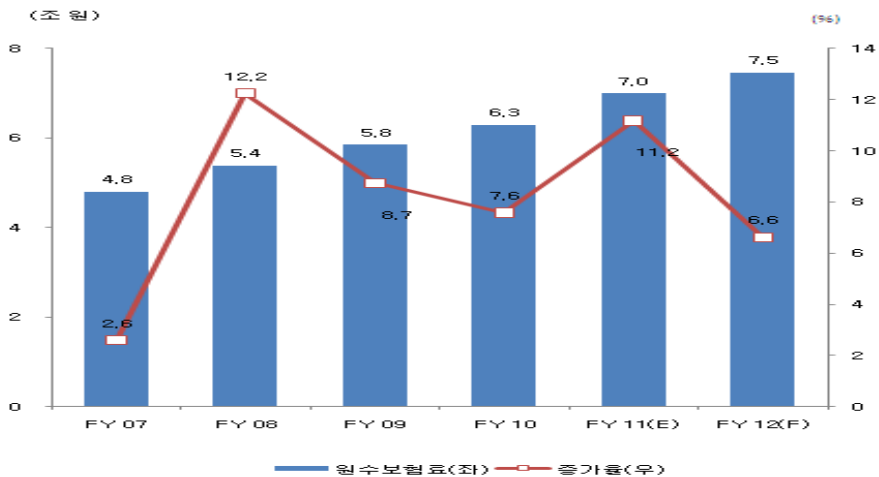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 보증, 특종보험 증가세가 FY201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의 경우 「화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5%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의 경우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적하보험 저성장이 전망되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선박보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2.1%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의 경우 빠른 건설경기 회복세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행보증보험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통신요금 신용보험 성장세로 5.9%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중심의 상해보험 증가세와 기저효과로 인한 기술보험 소폭 회복세로 8.2% 증가가 전망됨.
 - 상해보험의 경우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분위기에 힘입은 단체상해보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보험의 경우 민간건설 및 공공건설 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날 것이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IV-3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IV-8〉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763	-2.5	2,660	-3.7	2,632	-1.1	2,592	-1.5
해상	8,049	-5.4	7,721	-4.1	8,182	6.0	8,356	2.1
보증	12,287	6.6	13,074	6.4	14,549	11.3	15,410	5.9
특종 ¹⁾	35,371	14.5	39,446	11.5	44,567	13.0	48,202	8.2
합계	58,470	8.7	62,901	7.6	69,930	11.2	74,560	6.6

주: 1)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마. 손해보험 종합

-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금부문 급증세와 더불어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16.1%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급증세는 둔화되었으나 재물보험 급성장과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정부의 연금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개인연금 이 38.3%, 퇴직연금이 75.5%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차량고급화에 따른 자차보험 성장 등으로 8.0%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증가세로 11.2% 증가가 예상됨.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고성장으로 인한 15.1%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나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라 15.4% 증가가 전망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개인연금이 40.4%, 퇴직연금이 37.3%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5.5% 증가에 그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나 보증 및 특종보험 중심으로 6.6% 증가가 전망됨.

〈표 IV-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232,988	23.4	281,813	21.0	326,702	15.9	377,070	15.4
저축성	39,119	32.0	62,541	59.9	82,890	32.5	103,868	25.3
상해·질병	113,921	36.5	131,141	15.1	145,015	10.6	164,670	13.6
재물	18,635	2.9	21,791	16.9	30,034	37.8	35,858	19.4
기타 ¹⁾	61,312	6.4	66,340	8.2	68,763	3.7	72,674	5.7
연금부문	34,641	50.7	53,598	54.7	75,602	41.1	104,836	38.7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161	38.3	47,951	40.4
퇴직보험	8,680	27.5	5,284	-39.1	0	-100.0	0	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41,441	75.5	56,885	37.3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4,085	8.0	141,467	5.5
일반손보	58,470	8.7	62,901	7.6	69,930	11.2	74,560	6.6
화재	2,763	-2.5	2,660	-3.7	2,632	-1.1	2,592	-1.5
해상	8,049	-5.4	7,721	-4.1	8,182	6.0	8,356	2.1
보증	12,287	6.6	13,074	6.4	14,549	11.3	15,410	5.9
특종 ²⁾	35,371	14.5	39,446	11.5	44,567	13.0	48,202	8.2
전체	438,323	16.9	522,444	19.2	606,320	16.1	697,933	15.1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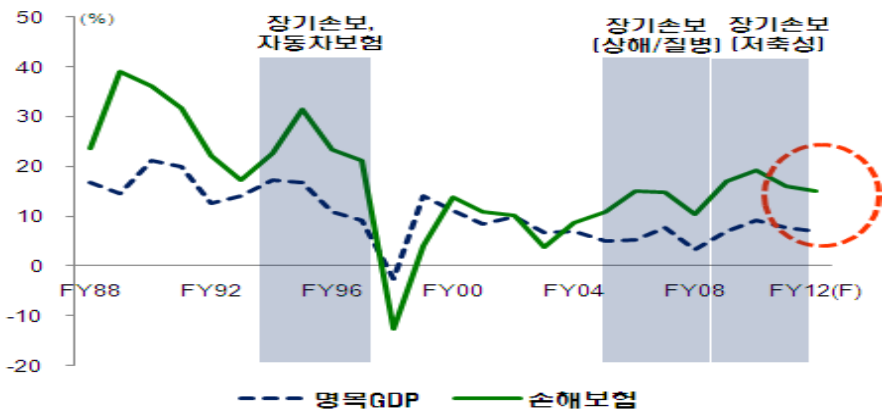
■ FY2012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위험요인이 있음.

- 첫째,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보험수요 창출이 제약받을 수 있음.
 - 내년에도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인하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둘째, 퇴직연금의 경우 아직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음.
- 셋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속도가 경기하락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음.

■ FY2012에도 명목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손해보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이라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그림 IV-36〉 명목GDP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3. 보험산업 종합

- FY2012 보험산업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 가능성을 전제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10〉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77.0	4.6	83.0	7.9	88.1	6.2	95.7	8.5
손해보험	43.8	16.9	52.2	19.2	60.6	16.1	69.8	15.1
전체	120.8	8.8	135.3	12.0	148.8	10.0	165.5	11.2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FY2012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²⁷⁾(총보험료/명목GDP²⁸⁾)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1에 비해 0.1%p 상승한 7.0%, 손해보험 침투도는 0.4%p 상승한 5.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IV-11〉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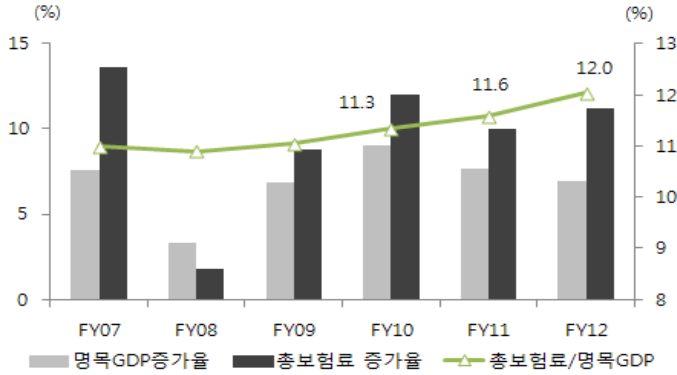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생명보험	7.6	7.2	7.0	7.0	6.9	7.0
손해보험	3.4	3.7	4.0	4.4	4.7	5.1
전체	11.0	10.9	11.0	11.3	11.6	12.0

주: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7)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28) 명목GDP는 FY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그림 IV-37〉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 FY2012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²⁹⁾(총보험료/총인구수)는 337만 1,000원으로 FY2011보다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밀도는 FY2011에 비해 8.3% 증가한 194만 9,000원, 손해보험 밀도는 14.9% 증가한 142만 2,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12〉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E)	FY2012(F)
생명보험	1,376	1,550	1,579	1,698	1,799	1,949
손해보험	613	701	899	1,069	1,238	1,422
전체	1,988	2,251	2,478	2,767	3,037	3,371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2)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 2006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29)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